

# 사제는 모든 이를 위한 자리

오푸스데이의 제3대 단장인 하비에르 에체바리아 주교는 자신의 주교 문장이 라틴어로 '데오 옴니스 글 로리아(Deo Omnis Gloria·하느님께 모든 영광을)'라며 "우리 인생에 있는 모든 것, 좋은 것과 좋지 않은 모든 것은 하느님을 사랑할 때 의미를 가진다. 개인이 아닌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이 행복하게 사는 비결인 것 같다"고 말했다.

2013-12-16.

오푸스데이(Opus Dei)는 미국 소설가 댄 브

라운의 베스트셀러 '다빈치 코드'와 톰 행크스

주연의 동명 영화로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은 가

톨릭 단체다. '다빈치 코드'에서 오푸스데이는

예수와 마리아 막달레나의 비밀을 지키기 위해

살인까지 저지르고 육체적 고행을 즐기는 가톨릭

릭 근본주의 성향의 비밀결사체로 그려졌다.

그러나 오푸스데이는 교황 요한 바오로 2세

가 1982년 교황청 유일의 교구 형태 성직자치단

으로 인정한 단체로서 그 창설자인 스페인 신부

호세마리아 에스κρι바(1902~1975)는 2002년

성인으로 시성됐다. 이 단체의 정식 명칭은 '성

십자가와 오푸스데이 성직자치단'. 오푸스데이

는 라틴어로 '하느님의 사업'이라는 뜻이다.

'다빈치 코드'가 초래한 악명(惡名) 때문에 이

단체의 인지도는 높아졌지만 여전히 일반에겐

베일에 가려져 있다. 오푸스데이는  
보수적 신앙

관과 함께 '교황의 비밀금고'로 불릴  
정도로 역

대 교황과 가깝고 자금력이 풍부하다  
는 것이 교

계의 평가다. 한국에서도 사제 2명과  
단원 50여

명이 대전과 서울대교구에서 활동하  
고 있다.

지난달 28일 영화 '호세마리아 신부  
의 길' 국

내 개봉을 계기로 오푸스데이 제3대  
단장인 하

비에르 에체바리아 주교(81)를 최근  
e메일을 통

해 인터뷰했다.

영화 '미션'의 롤랑 조페 감독이 연출한 '호세

마리아 신부의 길'은 스페인 내전을 배경으로

오푸스데이 창립자 호세마리아 성인의 삶을 그

렸다. 같은 스페인 출신인 에체바리아 주교는

1955년 로마에서 사제품을 받은 뒤 1994년 오

푸스데이 단장에 임명됐다. 그는 교황청 시성성

과 대심원, 성직자성 임원으로 세계가톨릭을

움직이는 인물 중 한 사람이다.

—영화에서는 호세마리아 성인의 삶이 감동

적으로 펼쳐진다. 오푸스데이는 영화  
제작 과정

에서 어떤 도움을 줬나.

“감독이 로마에 왔을 때 역사적인 배  
경을 올바

로 이해할 수 있도록 역사자료들을  
제공했다.

개인적으로 훌륭하게 이 작품을 만든  
조페 감독

에게 감사한다.”

—영화는 주인공 로버트의 아버지인  
마놀로

와 호세마리아 성인의 삶을 대비시키  
며 인간의

욕망과 참회, 용서의 길에 대해 말한  
다. 이 작품

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나.

“이 사회를 위해 헌신적으로 살아가는 신부들

이 떠올랐다. 제가 개인적으로 경험할 수 있었

던 호세마리아 성인의 가르침도 다시 생각할 수

있었다. 그분은 항상 '모든 이에게 두 팔을 벌려

마음을 열기 위해서는 십자가의 고통이 필요하

다'고 강조했다. 그 누군가가 (이념적으로) 오른

편에 있건, 왼편에 있건 관계없이 말이다. 프란

치스코 교황이 말하는 '열려 있는 마음'이 바로

이런 자세다." 에체바리아 주교는 1952년부터

1975년 호세마리아 성인이 선종할 때까지 함께

생활했다.

—일각에서는 이 영화를 '다빈치 코드' 때문

에 이미지가 실추된 오푸스데이의 '반격'으로

보는 시각도 있다.(오푸스데이 회원들이 제작비

일부를 지원한 것으로 알려져 있기도 하다.)

“이번 영화를 통해 많은 분이 오푸스데이에 대

해 더 잘 알게 된 것 같기는 하다. 조페 감독과

제작사에서는 이 영화가 특별한 반격은 아니라



고 한다."

—소설과 영화 '다빈치 코드'에서 가장 크게

왜곡된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.

"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심하게 왜곡됐

고, 오푸스데이에 대한 묘사는 너무나 터무니없

어 코믹했다. 그 덕분에 우리는 인내심을 갖고

현실을 홍보하는 방법을 배웠다."

—그렇다면 오푸스데이는 어떤 조직인가. 무

엇을 추구하나.

"교회법상으로 오푸스데이는 가톨릭 교회가 사

목적인 목적으로 만든 성직자치단이다. 그 취지

는 교회 안에서 모든 신자가 남녀노소를 막론하

고 성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리는 것이다. 또

오푸스데이의 유일한 목적은 영적인 것이다. 많

은 분이 하느님을 찾고 사랑하고 서로 봉사하며

사랑을 나누게 하는 것이다."

—오푸스데이의 현황은 어떤가.

"현재 약 9만 명의 단원이 있고, 2000명 정도

의 사제가 있다. 평신도 단원들은 대부분 기혼

회원들이고 각자의 사회적 영역에서  
활동하고

있다."

—가톨릭 일각에서는 오푸스데이가  
매우 보

수적이라고 한다. 이 단체가 추구하  
는 신앙과

영성은 무엇인가.

"호세마리아 성인은 오푸스데이 자체  
를 하나

의 큰 '교리문답'이라고 설명했다. 하  
느님께서

우리를 평범한 일상생활, 즉 우리의  
가정, 직업,

여가 안에서 부르셨다. 그러니 일상  
에서 사랑을

실천하는 생활이 우리들의 응답이어야 한다는

것이다. 오푸스데이는 이런 삶을 살고자 하는

분들에게 영적인 도움을 드린다."

—요한 바오로 2세와 베네딕토 16세 등 역대

교황과 오푸스데이는 깊은 유대를 맺어왔다. 그

래서 서방 언론에서는 오푸스데이를 교황의 비

밀결사, 재정적 후원자로 부르기도 한다.

"두 교황을 비롯해 많은 교황이 우리를 많이

도와줬다. 우리들이 지닌 희망의 하나는 모든

교황들에게 위로가 되고 희망이 되는  
활동을 하

는 것이다. 또 오푸스데이가 발전해  
도 보편 교

회와 개별 교회를 위한 것이 아니라  
면 아무 의

미가 없다. 한국의 오푸스데이도 각  
교구의 발

전을 위한 단체다. 프란치스코 교황  
은 교황 선

출 뒤 전 세계의 신자들과 비신자들  
의 기쁨과

고통을 모두 짊어져야 한다고 했다.  
그래서 저

도 베드로의 후계자(교황)를 위한 기  
도를 드렸

고, 많은 분이 교황을 지지하도록 부  
탁을 드리

고 있다."

—오푸스데이는 사회 속에서 어떻게 활동하

고 있나.

“전 세계에서 교육과 사회복지 사업을 진행하

고 있다. 하지만 이 사업은 평신도인 각 회원들

의 자율과 책임 아래 운영된다. 오푸스데이는

영적인 도움만 주고 사제들은 직접 개입하지 않

는 것이 원칙이다. 우리의 목적은 각 신자가 개

인 활동을 하며 그리스도와 이웃을 섬기도록 하

는 것이다. 이러한 정신은 프란치스코 교황께서

발표하신 '복음의 기쁨' 권고에 잘 묘사된 정신

이다." 오푸스데이 단원들은 대학 12개를 포함

해 각각 200여 개의 중고교와 초등학교를 운영

한다. 지금까지 알려진 이 단체의 자산은 약

30억 달러(약 3조1590억 원)로 추산된다.

영화 '호세마리아 신부의 길'의 또 다른 테마

는 내전이라는 사회적 상황과 종교인의 역할이

다. 최근 국내에선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

소속 신부들이 대통령의 퇴진을 주장  
해 사회적

으로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다. 이에  
대해 에체

바리아 주교는 "개인적으로 한국 사  
회에 대해

모르니 구체적으로 말하기는 어렵  
다"고 전제하

면서도 비교적 상세한 답변을 했다.

—사제들의 정치적 발언에 대해 어떻  
게 생각

하나.

"원칙적으로 사제들은 윤리적 문제,  
특히 사회

적으로 인권 문제가 있을 때 각 교구  
주교와 일



치해 발언해야 한다. 사제들은 항상  
평신도들에

게 신앙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. 사  
제들이 문

제를 제기하는 것은 옳은 일이지만,  
그 문제에

대한 해결책은 하나가 될 수 없으니  
신중하게

대응해야 한다. 사제들은 모든 이들  
을 위한 사

제가 되어야 하니 개인 의견을 함부  
로 드러내

다른 의견을 가진 이들에게서 멀어지  
는 것은 올

바른 일이 아니다."

—한국에서는 또 다른 추기경의 탄생  
과 순교

자들의 시복시성, 프란치스코 교황의  
한국 방문

이 관심거리다. 어떤 긍정적 움직임  
이 있나.

“교황께서 한국을 기꺼이 방문할 것  
으로 믿고

있다. 그리고 한국 교회와 사회도 교  
황을 많은

사랑으로 맞이할 것을 의심하지 않는  
다. 솔직히

구체적인 방한 스케줄이나 다른 결정  
에 대한 소

식은 아직까지 없다. 한국의 순교자  
들은 고난

속에 그리스도를 전하신 분들이니 시  
복시성이

잘 진행될 것이다.”

—현대 사회의 특징 중 하나는 종교의 위기다.

사람들은 점점 신을 믿지 않고 자신에게만 몰두

하고 있다. 그럼에도 행복한 사람들은 줄고 있다.

행복과 마음의 평화는 어떻게 이뤄질 수 있나.

“행복은 편한 삶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.

예수님은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이들을 초대했

다. 하느님과 함께하는 삶을 산다면 우리가 다

른 시선으로 세상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생길 것

이고, 이웃을 발견할 수 있다.”

—혹 사제가 되지 않았다면 어떤 일을 했겠나.

“모르겠다. 아마도 한 가정의 아버지로 사업을

하고 있을 것 같다.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제

삶에 들어와 생각지도 못했던 모험과 사랑의 길

로 인도했다는 것이다. 어려움도 있었지만 항상

기쁘게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.”

인터뷰=김갑식 문화부 기자  
dunanworld@donga.com

동아일보

---

pdf | document generated automatically  
from [https://opusdei.org/ko-kr/article/  
sajeneun-modeun-ireul-wihan-jari/](https://opusdei.org/ko-kr/article/sajeneun-modeun-ireul-wihan-jari/)  
(2025-4-27.)